

# 다녀왔습니다

Con đã về ạ

글 ODA Gada ◆ 그림 홍윤이

Chữ ODA Gada · Hình ảnh Hong Yuni



 광산구



 호남대학교  
HONAM UNIVERSITY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글 **ODA Gada** Chữ ODA Gada

광산구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ODA Gada의 협업으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개인위생 보건교육에 이어

성인지 교육을 위해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Cuốn sách này được biên soạn bởi câu lạc bộ gồm các sinh viên khoa điều dưỡng của Đại học Honam và bộ phận chính sách giáo dục phòng hỗ trợ giáo dục quận GwangSan với sự hợp tác của ODA Gada nhằm giáo dục bảo vệ sức khỏe vệ sinh cá nhân hơn nữa nhằm giáo dục giới tính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trên khắp thế giới.

그림 **홍윤이** Hình ảnh Hong Yuni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HILLS(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웠다.

그림책 출판사 이야기꽃에서 오랜 시간 편집디자인을 해왔으며,

페인팅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Cử nhân chuyên ngành Hội họa phương tây,  
đã từng học đồ họa tại HILLS (Trường đồ họa Hàn Quốc).

Là nhà thiết kế tại nhà xuất bản truyện tranh lyagikot trong khoảng thời gian dài,  
hiện đang chuyên làm đồ họa và vẽ tranh

# 다녀왔습니다

## Con đã về ạ

글 ODA Gada ♦ 그림 홍윤이

Chữ ODA Gada · Hình ảnh Hong Yuni

### 다녀왔습니다

초판	2020년 3월 30일
기획	광산구·호남대학교
윤문	홍윤이
디자인	유니크스튜디오
영문번역 감수	한국번역통역재단
펴낸이	광산구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대표전화	062-960-8536(교육지원과)

### Con đã về ạ

Ấn phẩm đầu tiên: 27 tháng 3 năm 2020  
Kế hoạch: Quận GwangSan, Đại học Honam  
Tô màu: Hong Yuni  
Thiết kế: Yunique Studio  
Hiệu đính dịch thuật tiếng Anh: đối tác đang tiến hành  
Nhà phát hành: Quận GwangSan  
Địa chỉ: 15, Gwangsan-ro 29beon-gil, Quận GwangSan, Thành phố Gwangju  
Điện thoại: 062-960-8536





**지호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Ji Ho là một học sinh trung học bình thường.



**지민이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Ji Min là một nữ sinh trung học bình thường.



지호는 교복을 입습니다.

Ji Ho mặc đồng phụ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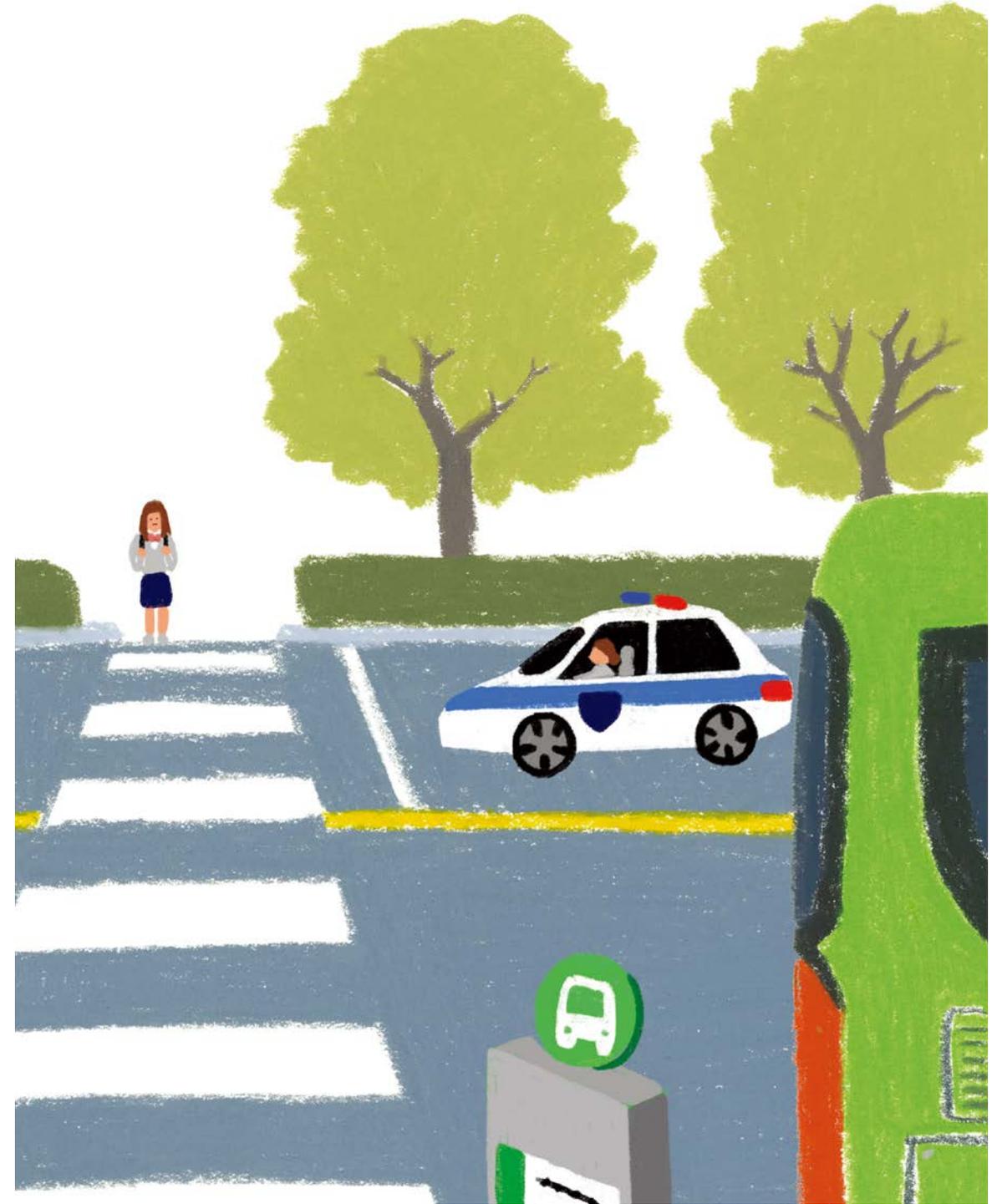


지민이도 교복을 입습니다.

Ji Min cũng mặc đồng phục.



지호는 아슬아슬 지각을 면했습니다.  
Ji Ho thoát khỏi đến muộn một cách ngoạn mục.



지민이는 안타깝게도 조금 늦었네요.  
Ji Min thật không may đến muộn một chút.



지호는 쉬는 시간이 종종 불편합니다.  
Ji Ho thường căng thẳng trong giờ ra chơ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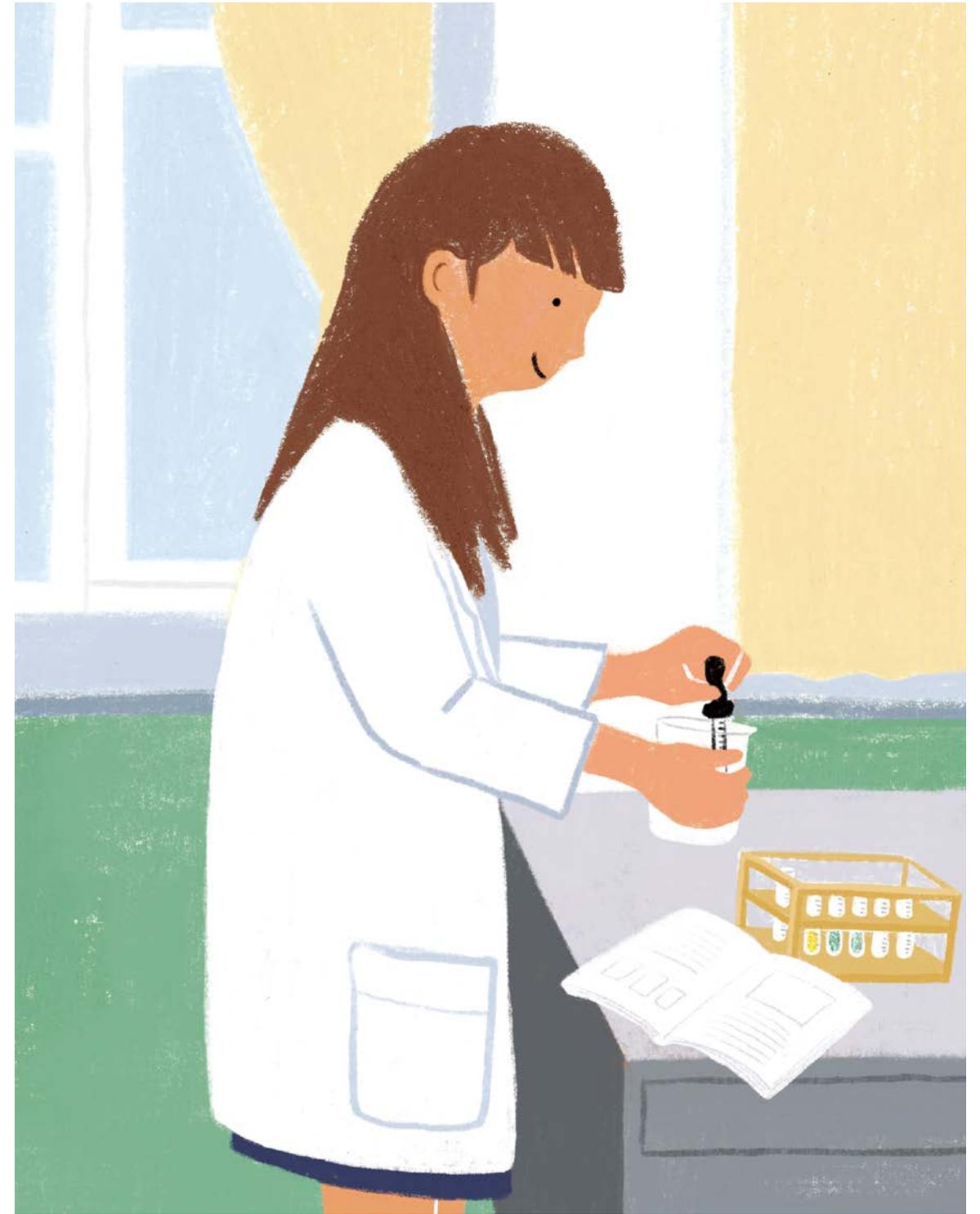


지민이도 쉬는 시간이 종종 불편합니다.  
Ji Min cũng thường căng thẳng trong giờ ra chơi.



지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Ji ho học chăm chỉ.



지민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Ji min cũng học chăm chỉ.



지호는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Ji Ho đợi ăn trưa.



지민이도 점심시간을 기다렸지요.

Ji Min cũng đợi ăn trưa.



지호는 체육시간을 좋아합니다.

Ji Ho thích giờ học thể dục.



지민이도 체육시간을 좋아합니다.

Ji Min cũng thích giờ học thể dục.



지호는 특별활동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Ji Ho vẫn chưa chọn được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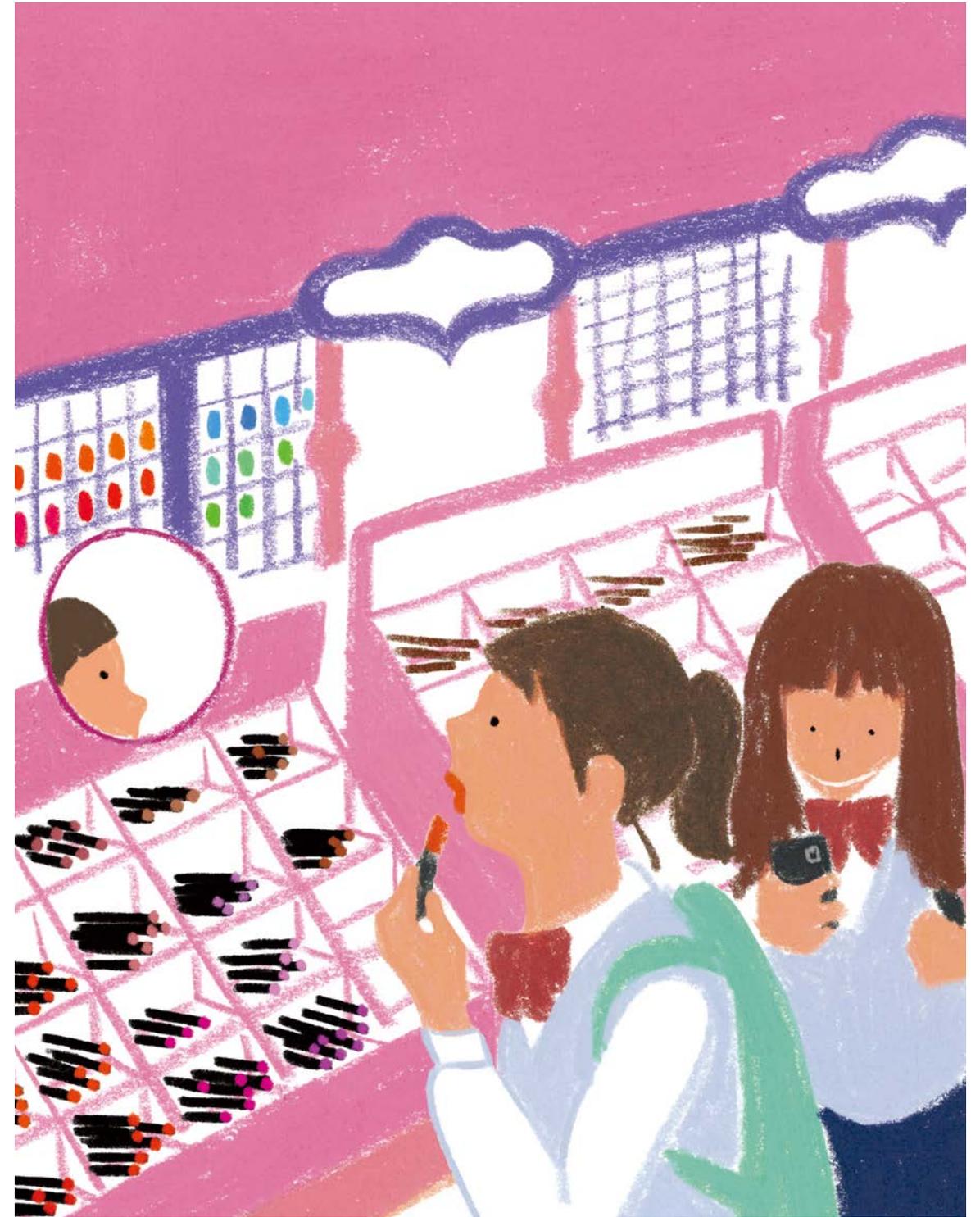
지민이도 특별활동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Ji Min cũng chưa chọn được hoạt động ngoại khóa.



지호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Ji Ho chơi cùng bạn b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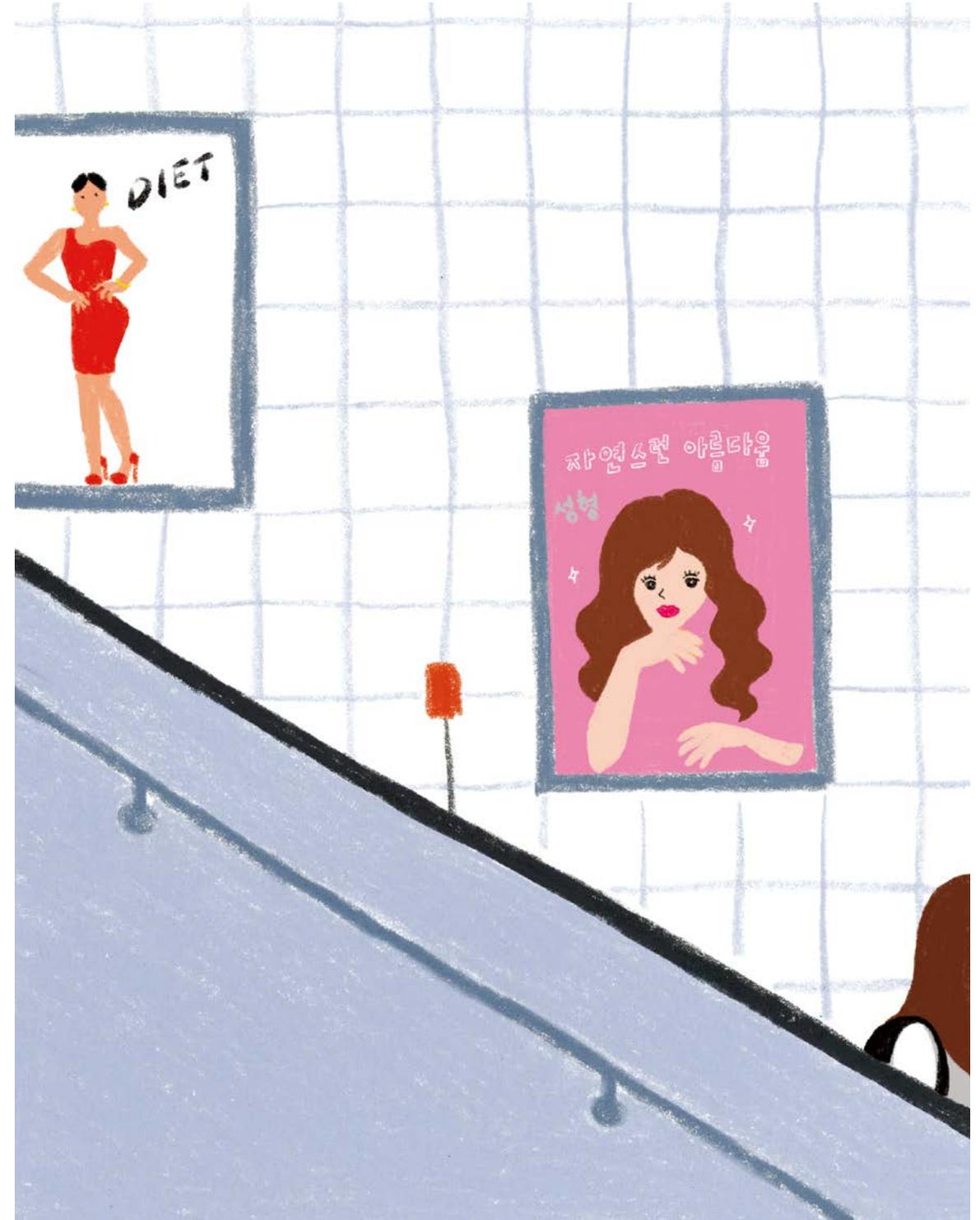
지민이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Ji Min cũng chơi cùng bạn b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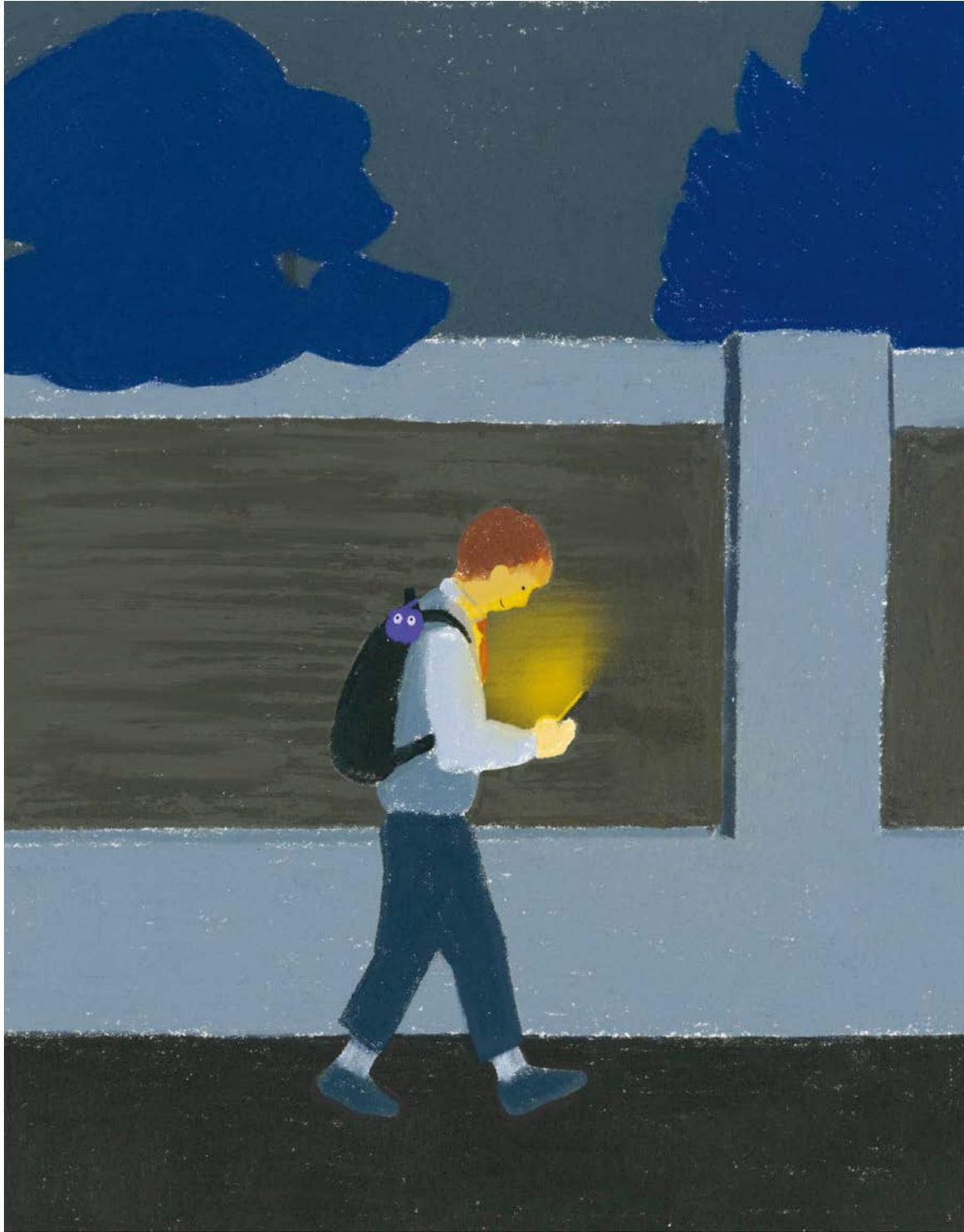
지호는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향합니다.

Ji Ho chia tay bạn và đi về nhà.



지민이도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합니다.

Ji Min cũng chia tay bạn và đi về nhà.



**지호는 천천히 걸어서 갑니다.**

Ji Ho bước đi chậm chậm.



**지민이는 조금 서둘러 걷습니다.**

Ji Min bước đi có một chút vội vàng.



"다녀왔습니다!"

"우리 쌍둥이들 같이 오는구나!"

"Con đã về ạ!"

"Cặp song sinh của chúng ta về cùng nhau đó à!"

지민이와 지호는 저녁을 먹습니다.

Ji Min và Ji Ho ăn tối.





둘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Cả hai đã trải qua một ngày như nhau.

아마도요.

Có lẽ vậy.



## 기획의도

〈다녀왔습니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호남대가 공동 진행하는 ‘청소년 세계 시민 교육 프로젝트’의 세 번째 그림책입니다. 청소년이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사회의 공적영역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사적영역(가정 등)에서는 민감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의 주 독자가 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스토리 구성 단계부터 워크숍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만들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큼니다.

“아직도 잘못된 성 고정 인식이 많은 거 같아요.”

“두루뭉술하지 않은 성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봐요!”

“성 소수자를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로의 그림책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참여 청소년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책이 만들어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접하는 성 고정관념의 모습들을 담기로 했습니다. 집과 학교, 등하곳길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다녀왔습니다〉는 ‘숨은그림찾기’ 같은 책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고 외면했던, 숨겨진 차별과 억압의 모습들을 잘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독자들은 책에서 찾아본 내용을 꼼꼼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성장하길 바랍니다. 물론 사회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금방 바뀌지 않겠지만, 혹여나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누군가는 변했을 테니까요.

### Production Intent

〈I'm back〉 is the third illustrated book in the ‘Rainbow Youth Global Citizen Project’ jointly published by Gwangsan-gu Office of Gwangju and Honam University. Youths need gender equality education to become members of community that respect diversity. While sensitivity regarding gender awareness has recently evolved. Still, however, we are insensitive in many aspects. This book was made more meaningful as we listened directly to the stories of adolescents, the main audience of this book, and the contents were created with them from the composition stage through workshops.

*“I think we still have misleading gender stereotypes.”*

*“Let’s make an illustrated book for sex education that is not ambiguous!”*

*“I want to make an illustrated book for the LGBT community.”*

*“How about making an illustrated book for victims of sexual abuse?”*

The participating teenagers were a great help to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as they actively voiced their opinions. We decided to deal with gender stereotypes that teenagers experience in everyday life in this book. We depicted situations that take place at home, school, and on the way to school and home.

The book is like a ‘hidden picture puzzle.’ Try to find hidden cases of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hat we overlooked and ignored in the past. We recommend young readers to spend some time to think about the situations they find in the book and discuss them with others for personal development. Naturally, society does not change readily or in the way you want. However, we hope you never become discharged because at least some people that read this book will change.

## 감수자의 한마디

사회 속 존재하는 젠더 규범을 표현함으로써, 성인지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회적, 구조적, 인지적 차별의 고정적 시선과 현실적인 문제가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행동과 글에 잘 드러나 있다. ‘만약에 나라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노미숙**(사)한국그림책문화협회)

전형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어, 독자가 당연하게 봐왔던 것에 대해 낯설게 느끼고 다른 성 역할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서정우**(광산구 여성아동과, 젠더 정책 전문가)

이 책을 함께 읽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남자 여자의 편견을 깨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건 여자가 좋아하겠네, 저런 건 남자가 좋아하겠네! 같은 편견을 깨 버리라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중2 남자**

남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의 억압을 표현하는 등 책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단기원터 이용 청소년**

성별 고정관념을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현실과 동등하게 표현해 공감력이 높은 그림책이다. 같은 환경에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거울을 보는듯한 느낌으로 교육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에서도 평가하는 주체, 평가당하는 대상으로 나누어서 묘사한 점이 흥미로웠다. 사회적으로 남성, 여성에 대한 기대치와 고정관념 같은 걸 간접적으로 잘 표현했다.

**김진숙**(미국 텍사스 대학, 여성학 전공)

콘텐츠에 성별고정관념과 가족, 청소년에 대한 주류 중심의 표현이 다양하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상을 통하여 성별 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성차별적 상황을 살펴보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영임**(광산구의원)



#### 참여자(그림책 프로젝트 참여 학생)

이승희, 김정현, 송현지, 박나연, 최지은, 윤민지,  
조혜주, 이지은, 박유경, 이찬미, 송하늘, 이지원,  
정유진, 노다은, 민혜영, 이시윤, 조혜성, 신민주,  
정민주, 김서영, 양혜지, 정영은, 봉미송

#### 공동기획

광산구 교육지원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장윤경 교수)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신혜연 센터장)  
한국그림책문화협회(노미숙 대표)

#### 성인지 분야 감수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장)  
서정우(광산구 여성아동과)  
조영임(광산구 의원)  
김은영(여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진숙(텍사스 대학교 미디어학과 강사)

#### 도움주신 분

예지책방, 나비효과(성문화동아리),  
김우영(㈜3D테크놀로지)

이 책의 공동저작권은

광산구, 호남대학교 장윤경 교수 외 학생 23명,  
홍윤이, 유니크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 Người tham gia (Học sinh tham gia Dự án Truyền tranh)

Lee Seunghee, Kim Jeonghyun, Song Hyeonji, Park Nayeon,  
Choi Jiyeun, Yoon Minji, Cho Hyeju, Lee Jieun, Park Yougyeong,  
Lee Chanmi, Song Haneul, Lee Jiwon, Jeong Yujin, No Daeun,  
Min Hyeyoung, Lee Siyun, Cho Hyesung, Shin Minju, Jeong Minjoo,  
Kim Seoyoung, Yang Hyeji, Jeong Youngeun, Bong Misong

#### Đồng kế hoạch

Phòng hỗ trợ giáo dục Quận GwangSan  
Khoa Điều dưỡng tại Đại học Honam(Giáo sư Jang Younkyoung)  
Trung tâm văn hóa giới tính thanh thiếu niên quận GwangSan  
(Giám đốc Trung tâm Sin Hyeyeon)  
Hiệp hội văn hóa truyền tranh Hàn Quốc(Giám đốc No Misuk)

#### Hiệu đính lĩnh vực giới tính

Kim Jihak(Viện trưởng Viện nghiên cứu đa dạng Hàn Quốc)  
Seo Jeongwoo(Phòng trẻ em nữ Quận GwangSan)  
Jo Yeongim(Đại biểu quốc hội Quận GwangSan)  
Kim Eunyoung(Giám đốc Trung tâm văn hóa giới tính thanh thiếu  
niên Yeosu)  
Kim Jinsook(Giảng viên Khoa Truyền thông, Đại học Texas)

#### Những người giúp đỡ

Hiệu sách thông thái, Hiệu ứng cánh bướm, Kim Wooyoung(CT Kỹ thuật 3D)

#### Đồng tác giả cuốn sách này là

Quận GwangSan, Đại học Honam Giáo sư Jang Younkyoung và  
23 sinh viên khác, Hong Yuni, Unique Studio.

지민이와 지호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보낸 하루는 서로 조금 달라 보이네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Ji-min and Ji-ho have an ordinary day.  
They attend classes, get along with friends...  
However, their day doesn't seem the same.  
Is it okay in this way?